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서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뽀피아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법공양 페이지

'주인공'은 법계로 통하는 무선통신

17면에서 계속

공, 다 주인공 거기서 나오는 거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그 짓을 하는 것같은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이 세 사람을 불러 놓고서는 '회사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 아무래도 회사 살림을 잘 이끌어갈 사람은 당신네들 밖에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아예 열쇠꾸러미를 맡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바깥의 일을 잘 이끌어갈 사람은 당신네들 밖에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아예 열쇠꾸러미를 맡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바깥의 일을 잘 이끌어갈 사람은 당신네들 밖에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아예 열쇠꾸러미를 맡겨 버렸습니다.

선한것도 악한것도 다 주인공 자리에서 오고간다고 아주 믿어 버리세요, 저 사장이 열쇠를 탁 맡겼듯이 말입니다. 그냥 주인공을 믿어버리는게 한마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속의 악업 선업의 온갖 의식들도 한마음으로 못 만든다면 어떻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바깥의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만들겠습니까?

누가 아님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별다른 공부라기 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쯤은 알아야 할 게 아니라, 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여가는 이 묘한 법을 알아야 할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알고자 하는게 이 공부입니다. 무슨 용어가 어떻게, 경지가 어떻게 되는 걸 외우고 이 공부를 하는게 아니지요.

물으셨으니 말씀드리는 것인데 선정이다 지혜다 하는게 다 들어 아닙니다. 선정이라고 하면 자기의 근본성품자리에 드는 것을 말하고 지혜라고 하면 바로 그런 성품자리에서 일어나는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게 다 법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법은 다 자기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가 바로 원인이요 드는 자리 나오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가지로 방편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살면서 방편의 말씀을 겪는 여러가지 일들이란 바로 진리가 어떻게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한 나날들 속에서 겪는 고통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혹은 생동감이라든가 하는게 모두 공부재료란 말이요, 거기에 선정도 있고 지혜도 깃들여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나 지혜를 찾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인경지라는 것도 생각해서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열심히 닦다보면 어떤 경계라도 닿기만 하면 그냥 타버리는 그런 이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누가 있는게 높은게 아니고 알게 있는게 알은게 아니로구나. 모두 나한테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맛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체가 나한테 있는 걸 알게 되면 일체가 나와 더불어 풀이 아니게 나두는 걸 알게됩니다. 그러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주체를 꿰뚫는데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거든요. 왜냐? 자꾸 따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어떤분이 이런 질문을 해 왔습니다. B형 만성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장기치료를 하라 말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도 해야하므로 직장엔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수치인가가 낮아졌지만 상태는 여전히 안 좋으니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입니다.

한번 믿기로 했으면 철석같이 믿어야지요.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느냐, 살리는 것도 주인공 죽이는 것도 주인공하고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요건 몇 근 짜리 일가 저런 몇 근 짜리일가 하고 왜 근수를 다느냐 이거지요.

그게 의심 아닙니까? 잘 되고 못 되고를 다 놓지 않는다면 그건 치우치는 것

는데 영증하게 반응해서도 안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 놓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금세 달라지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일일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아직 어른이 되기 전이라서 그러셨을 것이고 어른이 다 되었다면 대답할 것도 안할 것도 없었겠지요.

다른생명도 마음공부 하는지

문 제가 경전을 통해서 배운 바로는 다른 생명들도 마음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간과 다른 생명들이 다른 것은 입과 습의 두께가 달라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물들이 그 모습 그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몸을 버리고 인간의

한점 마음의 불씨가 우주를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런 오묘한 마음을 갖고 저울질만 한다면...

이지요.

이 공부는 좀 무식한 척, 둔한 척 하는 게 좋습니다. 둔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벌써 오관을 통해서, 사랑으로, 머리로 다 알아 버려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 공부는 도무지 근수를 달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잘된 것 못된 것을 일일이 계산해서도 안되고 잘된 것 못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려도 안됩니다.

이 공부는 말하자면 몽땅 태워버리는 공부인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나면 뭐 남는게 있어서 몽땅 태워버린다 할 겁니까?

무조건이지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마음에다 이것 저것 쌓아놓지 말고 몽

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까닭이 무엇인지요?

일체 만물만생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거추장스러우니까 간단히 사람 몸속의 생명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 몸속의 생명체들은 나쁘고 좋은 걸 몰라요. 그래서 선정적인 내 마음이 잘 다스려져 속의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뼉 다스리기가 백지 한창 차이면서 또 은산철벽이 됩니다. 그러니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은 1백%이지만 그 백지장 사이를 두고 중생이다 부처다 이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기 이전 단계인 짐승의 몸을 받아 나왔다면 어떻게 단번에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자꾸자꾸 진화를 해서 올라와야 되겠지요.

인간의 몸을 받았더라도 까닭 잘못하면 저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돌고 돌아 갑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좌천하지 않고 진리의 길만 지속적으로 밟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모습 저 모습을 바꿔쓰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서 우리는 부처되기 어렵고 짐승은 인간되기 어렵고 그런 것이지요.

가령 미생물이라고 합시다. 그 미생물이 어느 때 가셔야 짐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길이었지요.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살던 습이 있어서지요.

뱀 소굴에서 뱀으로 살았다면 그 습이 지중할때 그것을 털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는 동안에 업을 많이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짐승같은 것을 한다면 영락없이 짐승 모습을 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좋은 일 하지 않고 나쁜 일로 세월을 허송할 건가요?

그래서 가르치신 말씀이 늘 남에게 이롭게 해라, 말도 이롭게 하고 행동도 이롭게 해라, 할 수 있는 능력껏 남에게 이익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꼭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자기 형편, 자기 환경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인간이 부처되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밖으로 늘 남에게 이익되게 마음을 내면서 안으로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조차 주인공에게 맡겨놓고 가야 하지요. 그런데 모두들 이치가 그러한 줄은 알았는데 실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영원한 내 친구,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로 끌고 왔으니 이끌어 가는 것도 너 밖에 없다! 고 하는 그 작업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 목련 존자가
- 부모 건졌듯이
- 우리 불제자도
- 내 한생각이
- 그리 할수 있다는
- 마음 가져야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서 그저 평중하고 받고 이러는데 첫째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태초요 자기가 있으니 까 도무 있는 것이나 자기로부터 해결하라 이겁니다. 자기부터 마음도리를 알아야 공덕이 되고 남도 건져주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것이니 내 마음도리도 모르고서 어떻게 상대방을 건져 주겠습니까?

양무제가 그렇게 많은 불사를 했지만 달마대사께서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답니다. 자력이 아니라 타력신앙을 했으니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마음도리를 배워야 공덕이 되는데 그런건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겼다면 '아이구 스님! 어떻게 좀 해주시오!' 이라고 나오면 그 스님만큼 대신해서 무엇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마음의 공력, 자력, 전기력, 통신력을 다 갖췄으니 주인공에 놓는다면 고칠 건 고치고 건질 건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련존자가 부모를 건졌듯이 우리가 불제자라면 내 한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여야 합니다. 불질로는 아무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이라야 하지요.

그런데 그걸 잘 믿지 않으니 탈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이 도리를 꼭 알아야 합니다. 몸뚱이 없어지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정·지혜 이해 어려워요

문 불교를 공부하다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가지 용어도 난해한 것 같습니다. 여쭙건대 선정과 지혜, 대원경지, 신통력 등에 대해 알기쉽게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높은 경지 낮은 경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쭙건대 선정과 지혜, 대원경지, 신통력 등에 대해 알기쉽게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어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 저기 참고할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답까지 가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말로 설명되어지

'이게 옳나' '저게 옳나' 무게 달면 공부 못해 "진실한 믿음 앞엔 잘되고 못되고 안 붙어"

이건 물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주인공에서 방법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일체를 맡겨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목숨을 뱉을 수가 없고 고정관념을 깨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마음이 필요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말이 필요하기에 애걸 하는 겁니다.

신통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공부에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어서 그런 용어도 생긴 모양입니다만 자기가 완전히 죽었을때 자기가 탄생하게 되는데 곁테기를 다 벗고, 다 태워버리고 나면 오온에 맡기지 않고 자재로서 오관을 부릴 때 '도력'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때에 지혜와 선정과 자비가 풀이하게 같이 돌아옵니다. 거기엔 '나'라고 세울게 없습니다. 세워져 되는게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을 하고 보람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또 놓고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또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죽고 또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 한번 죽어서는 그대로 불되고 갈게 있어서 쉬운데 두번 죽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번 죽어서 새롭게 탄생했다면 여러대가 나온 것이니 이제 더 자라서 어떤 노릇을 하려면 일체와 더불어 같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 나뉘는 경지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깊은 길을 밟을 때 밟고 밟고 다니며 손없는 손으로 땅을 밟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남전참모'의 가르침

문 무문관 14칙에 '남전참모'가 있습니다. 통기로는 남전스님의 대자비한 매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들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심중계를 저버리는 방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 현대불교신문 160호 '길을 묻는 이에게'의 마지막 문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나고 물으시는데 방편이라는 생각조차도 놓고 나와 나가 풀이 아닌 한마음이 될 때에 남전스님처럼 힘이 없는 행을 하게 되겠지요. 물 한 컵에 물 한 컵을 섞으니 여전히 물 한 컵이 됩니다.

주인공에 맡겨 희열감 맛봐

문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소주 인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사무실에서 어떤 경계에 부딪혔는데 평소처럼 일이 잘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 왔습니다. 그때 주인공에 놓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잠시후엔 일이 잘 풀리면서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움 말씀을 바랍니다.

답 누차 말씀드리지만 잘 되는 것도 법, 안 되는 것도 법입니다.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 놓고 잘 안되는 것은 '주인공' 너 밖에 해결할 수 없지'하고 되놓으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맛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큰 일은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앞에서는 잘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도 실은 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일체를 주인공이 한다고 믿어 거기에 몽땅 맡겨 놓고 나는 시자이니까 몸으로 열심히 뛰지만 하면 그뿐입니다.

남편이 무리한 사업벌어

문 남편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바람에 망하고 싸우고, 때로는 관하기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60이 가까와 오는 나이에 남편의 처사가 너무 답답합니다.

아이들도 혼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능력이란 끝단계가 없어서 전자력·공력·통신력이 중만해 있다고 그랬지요? 또 사대로 통신이 되니까, 일체는 서로 가설이 되어있으니까 얼마든지 전화율이 올릴 수 있다고 했질 않습니까?

말고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또 해라 하지 말라고 말로만 될 일도 아닙니다. 가령 자식이 밤늦게까지 소다난다고 할때 마구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움직여 행동도 달라지듯이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주인공에 관하기도 했다고 하시는데 육신을 상대로 하지 말라고 관하는게 아닙니다.

마음이 마음으로 통하게 '주인공, 하게하는 것도 당신 밖에 없고 안하게 하는 것도 당신 밖에 없으니 잘 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으로 '아 저건 틀리다, 저건 옳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엔 티끌 하나 붙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는 게 붙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첫째입니다. 일체를 주인공이 한다는 믿을 말입니다. 그런 믿음만이 한 손에, 한 할나에 뚫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차치하면 미(迷)해질 수도 있

팡 삼키고 몽땅 태우고... 무게를 달면 도대체 몇 근짜리나 될거라고 스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합니까?

한 점 마음의 불씨가 우주를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울질만 한다면 저울질 밖에 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합니까

문 부처님께 한 제자가 여쭙었습니다.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답하시기를 '마주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물기를 '마주 보아야 할 경우는?', 답하시기를 '말하지 말라' 다시 물기를 '말해야 할 경우는?', 다시 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지말라, 해서는 안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게을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난 뒤에는 대답이 달라지겠지요.

이 마음공부에는 여자·남자가 따로 없습니다. 동·서가 따로 없고 높고 낮음이 따로 없고 길고 짧음이 따로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도 따로 없습니다.

그게 마음공부입니다. 그래서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심도리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안팎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육정이란가 마음의 동요라든가 혹은 욕지 욕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스려서 놓도록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행여 남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